

### 해인사 1207주년 개산대재 봉행 다례제 사진전 복식전 등 다채

합천 해인사(주지 선각)는 10월 13일 제1207주년 개산대재 다례제를 봉행했다.

행사에는 조계종 종정 법전 스님을 비롯해 수좌 원용 스님 등 200여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종정스님의 헌향을 시작으로, 헌화, 종사영반 등으로 진행됐다.

개산대재를 기념한 사진전 등 문화행사도 함께 열렸다. 대장경 판전 앞마당에서는 여행사진가 이현준 작가의 '세계문화유산 사진전' 등이 시작된 것을 비롯해 17일 성보박물관에서는 '비운의 군주 광해군 복식전'을 개최했다. 전시는 31일까지

계속된다.

한편, 해인사는 23~23일 경내에서 비로자나불 무생계 수계대법회를 봉행한다.

법회는 종정스님을 전제대회상, 해인사 율주 종진 스님을 감마아사리로 모시고 진행된다.

해인사 관계자는 "비로자나불 무생계는 비로자나불이 살고 문수보살이 전해온 법신계로서 보살계를 한 단계 진전시킨, 오늘날 모든 불자들이 수지해아할 신행규범"이라며 불자들의 동참을 당부했다. (055)934-3111

손법천 대구지사장

### 대구은행, 동화사에 전동차 기증 8일 기증식... 대구은행 환경사랑 운동 일환

대구 동화사(주지 허운)는 10월 8일 대구은행으로부터 전동차 1대를 기증 받았다.

경내에서 열린 기증식에는 동화사 주지 허운 스님을 비롯해 하춘수 대구은행장이 참석했다.

허운 스님은 "소음과 매연이 없는 친환경적인 전동차는 경내 업무용으로 적합하다. 전동차를 기증해줘 감사하다"고 말했다.

대구은행이 펼치는 환경사랑 운동의 일환으로 동화사에 기증된 전동차는 사중의 업무관련 운반 담당에 사용될 예정이다.



전동차 기증식에서 함께 한 허운 스님(오른쪽)과 하춘수 대구은행장.

대구은행은 지난해 4월 동화사에 문화재지킴이 활동과 화재진압을 위한 소방용 오토바이도 기증했었다.

손법천 대구지사장

### 전문직 53선지식 동자전 개최 31일까지 여진불교미술관서

여진불교미술관(관장 이진행)은 10월 14~31일 '53선지식 동자전'을 주제로 '2009년 선지식을 전문 직업인에서 찾다' 전시회를 개최한다.

개막식에는 활안 스님을 비롯해 구암사 회주 복천 스님, 육전불교연합회 회원스님 등 100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무형문화재 제6호 불상조각장이기도 한 이진행 관장은 "개관 4주년을 맞아 특별히 기획된 전시회는 <

화엄경>에 선재 동자가 찾아다니던 선지식을 21세기 전문 직업인에서 찾고자 교육 종교 법률 문화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 모범 전문직업인들을 동자상으로 캐릭터화했다"며 "보살행의 화현인 여러 동자상을 비롯해 선재 동자가 깨달음을 얻기 위해 찾아다니던 21세기 선지식 상이 대한민국의 장인의 손에서는 어떻게 탄생했는지 감상할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혜철 충청지사장

## 재가불자 역할 모색하다

### 총지종 중앙교육원 22~26일 국제 재가불교지도자대회

전세계 재가불교 지도자가 한 자리에 모여 재가불자의 역할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총지종 중앙교육원(원장 화령 정사는)은 10월 22~26일 서울과 평창 월정사 등지에서 '재가불교와 사회참여'를 주제로 제3회 국제 재가불교지도자대회를 개최한다.

행사는 14개국 30여 국내의 재가불교 지도자, 재가불교운동 관련 학자 등 재가자는 물론 출가자 등 사부대중이 참가해 재가불교 발전 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22일 저녁 6시, 서울 올림픽파크텔 올림픽아름에서 환영 만찬을 시작으로 열리는 행사는 다음

날 같은 장소에서 오전 9시부터 '재가불교와 사회참여'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에서는 △재가불교의 이론적 기초 △재가 및 참여불교 단체 △한국 인도 티벳에서의 불교와 사회의 소주제로 나뉘어 국내외의 재가불교지도자 11인이 주제발표할 예정이다.

세미나 후에는 23~24일 평창 월정사에서 템플스테이를 통해 생활불교 관련 세부실천 방안 논의와 각국 대표의 재가불교 활동에 대한 소개가 진행된다.

25일에는 강릉 일대 유적지, 박물관 등을 찾아 한국문화를 소개하는 시간을 갖는다.

효강 종령은 "국제재가불교지도자대회를 통해 전세계 재가불자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이를 통해 생활불교를 정착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화령 정사는 "세계의 많은 재가불자들이 생활불교에 대한 사상적 기반을 확고히 하기 위해 토론의 장을 갈구해 왔다"면서 "본대회가 불교를 새로운 시각으로 이해하고 실천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제2회 대회는 지난해 '재가불교의 철학과 실천'을 주제로 열렸다.(02)552-1080

조동섭 기자

### 중창불사 회향 23일 영월 해운사

태고종 영월 해운사(주지 정담)는 10월 23일 오전 11시 30분 경내에서 중창불사 회향법회를 봉행한다.

행사는 주지 정담 스님이 일주문 건립과 무량수전 신중단에 목탱화를 조성하는 등 중창불사를 회향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편, 주지 정담 스님은 2001~2004년 사부대중의 원력을 모아 무량수전을 비롯해 7층 석탑과 범종각 등을 장엄하는 등 해운사 가람 불사에 힘써왔다. (033)374-0079

조동섭 기자

### 제3회 만해예술제 30일 동방대학원대

동방대학원대(총장 정삼옥)는 10월 30일 오후 3시 교내 사자후전에서 제3회 만해예술제를 개최한다.

행사에서는 만해시 낭송, 살풀이, 해금 연주와 몽골 불교의례 시연, 티베트 전통음악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02)3668-9823

조동섭 기자

### "전통무예 보러 오세요" 골굴사 11월 1일 전통무예대회 열어

경주 골굴사(주지 적경)는 11월 1일 오후 12시 선무대 대학공원장에서 전통무예대회를 개최한다.

템플스테이와 함께 열리는 행사에서는 기천문, 경당 24반무예, 무의단공, 선무도, 영가무도, 태권, 합기도, 공수도 등 20여 전통무예가 선보인다. 이어 오후 3시부터는 대적광전 공연장에서 선무도와 임동창의 피아노, 인간문화재인 서울대

이재주 교수의 승무, 정경화 선생의 태권, 판소리 등 예술공연이 펼쳐진다.

적경 스님은 "선무도 세속포교 25주년을 맞아 한국전통무예대회를 열게 됐다"며 "가을 산사에서 전통무예와 예술공연을 관람하는 이색 템플스테이에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054)744-1689

조동섭 기자

### "진흥원 임대수익 영담 스님 발언 잘못" 진흥원, 불교방송 인용자료 오류 지적

"진흥원이 BBS를 상대로 60억원의 임대수익을 올렸다는 영담 스님의 발언은 잘못됐다."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민병천, 이하 진흥원)은 10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불교방송(이사장 영담, 이하 BBS)이 8일 기자간담회에서 인용한 통계자료에 중대한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진흥원은 보도자료에서 "BBS는 '진흥원으로부터 90억원의 지원금을 받았다. 오히려 진흥원에 150억 원을 지급해 진흥원에 60억원의 임대수익을 올렸다"고 발표한 것은 틀리다"면서 "진흥원은 BBS 설립 이후 145억원을 지급했다. 이를 90억 원으로 주장한 BBS는 설립 당시부터 1993년까지 자료를 찾기 어려워 1994년부터 2003년까지만 계산했다고 해명했다"고 말했다.

진흥원은 "BBS측이 냈다는 150억 원에는 부가세, 관리비 등 대부분 제3자에게 납부한 금액까지 포함됐다"며 "BBS가 진흥원의 지원금으로 자체 활용한 액수는 70억 원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조동섭 기자

### 능인중·고교 설립 기념비 제막 9일 개교 70주년 맞아 은해사 백련암 앞에서



10월 9일 능인중·고교 개교 70주년을 맞아 은해사 백련암 앞에 건립된 학교 설립기념비 제막식 모습.

종립학교인 능인중·고교가 개교 70주년을 맞아 학교 설립 기념비를 제막했다.

학교법인 능인학원(이사장 종광)은 10월 9일 은해사 백련암 앞에서 학교설립비 제막식을 봉행했다.

설립비는 전면에는 '능인중·고등학교 설립비'를 한문으로 새겼고, 후면에는 학교의 건략한 역사를 기록했다.

종광 스님은 축사에서 "능인중·고교는 일본강점기 당시 불교 선각자들이 민족정신을 지키고자 설립한 호국사상이 깃든 교육의 현장"이라며 "설립비 제막을 계기로 능인학원 설립의송고한 의미가 널리 알려

져 불교 종립학교로서의 위상을 드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능인중·고교는 1939년 은해사 백련암 옛터에서 오산불교학교로 개교했다. 개교 당시부터 체계적인 중등교육기관으로 인재양성에 힘써왔다. 1946년 능인중학교로 전환, 1951년에는 고등학교를 설립해 현재까지 6만여 졸업생을 배출했다.

행사에는 은해사 주지 돈관, 선분사 주지 항적 스님과 능인고 양근식 교장, 능인중 김영현 교장 등 사부대중 200여 명이 참석했다.

손법천 대구지사장

### 마곡사에 충청관 '올레길' 열려 2010년 말까지 '마곡사 솔바람길' 개설

제주 자연을 벗 삼아 걷는 '올레길'에 이어 공주 마곡사에 충청관 '올레길'이 개설된다.

충남도(도지사 이완구)는 "2010년 말까지 2억원을 들여 천년고찰인 공주 마곡사 인근 솔숲을 거닐며 심신을 단련할 수 있는 가칭 '마곡사 솔바람길'을 개설하기로 했다"고 10월 12일 밝혔다.

도는 마곡사 솔바람길을 시범으로 추진한 뒤, 2011년부터는 서산시 가야산 보원사지 가는 길 등도 특색 있는 산책로로 개발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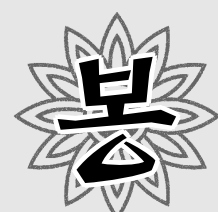
마곡사 솔바람길은 △마곡사 가는 길(마곡사관광지~천연송림욕장, 총연장 2km, 소요시간

30분) △백범 명상길(천연송림욕장~은적암~백련암~활인봉, 2km, 60분) △솔잎 운단길(아들바위~나팔봉, 1.5km, 30분) 등 6가지 코스로 구상 중이다.

이 중 '백범 명상길'은 백범 김구 선생이 일본 낭인에 시해당한 명성황후의 원수를 갚기 위해 1895년 일본군 장교를 살해한 뒤 마곡사로 도피해 은거 생활을 할 때 구국의 의지를 불태우면서 거닐었던 숲길이다.

한편, 올레는 제주말로 '큰길'에서 집 때문에 이르는 아주 좁은 골목길'이란 말이다. 지금은 자연친화적인 '트레킹 코스'의 의미로 변용됐다.

조동섭 기자



# 大韓國佛教曹溪宗 創宗宣布



佛敎가 우리나라에 傳來된지 1천6백餘年이 흐르는 동안 우리民族의 혼과열을 심어 주었으며 또한 精神思想은 물론 國家發展에 지대한 貢獻을 하였으며 수많은 文化遺産을 우리 後孫들에게 남겨주어 世界的인 文化遺産으로 등재해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文化財는 대략 佛敎유산이라고도 할 수 있으므로 그 業績은 대단한 것입니다. 또한 歷史의 흐름에 따라 우리나라는 수많은 외침과 수많은 受難을 겪을때마다 부처님의 佛智와 대원력으로 그 위기를 슬기롭게 克復하여 왔습니다.

여기에 本宗團은 釋迦牟尼 부처님의 敎理를 봉체하며 佛祖의 慧命을 近問으로 正法修行과 布敎活動으로 時代的인 사명의식과 대원력으로 至極 發心하여 圓融無碍로 이나라의 發展과 國泰民安 및 成佛得度하여 수미산 정상에 獅子吼를 拔河老泥 大韓國佛敎曹溪宗의 공식 명칭으로 宗憲을 宣布함에 率先自律思想을 發揮하여 宗風을 外護 內剛계 함으로 宗團의 紀綱을 確立하고 傳統을 바로잡아야 할것입니다.

우리는 佛祖의 加護 아래에서 法孫萬代까지 永遠한 繁榮과 임지안국의 修行精進으로 전원 成佛하시길 祈願하며 嚴肅히 創宗을 宣布하는 바입니다

불기(佛紀) 2553년 10월 10일(陰曆. 8. 22)

### 總務院長 德山

- |          |         |
|----------|---------|
| 總務副院長 實應 | 元老院長 妙玄 |
| 中央禪院長 法光 | 宗會議長 昇志 |
| 監查院長 大正  | 敎育院長 普明 |
| 布敎院長 法雄  | 考試院長 眞峯 |
| 文化院長 法宣  | 護法院長 梵海 |

- |         |         |         |
|---------|---------|---------|
| 總務部長 般山 | 敎務部長 德淨 | 財務部長 智山 |
| 社會部長 應宣 | 企劃部長 成道 | 布敎部長 眞妙 |
| 文化部長 普慧 | 糾正部長 日如 | 弘報部長 昇岩 |

\* 함께 하실 종도(宗徒) 여러분을 모십니다.

大韓國佛敎曹溪宗 總務院: 서울特別市 鐘路區 平倉洞 523-61番地  
電話 02)379-5502 / 팩스 02)379-0843